

# 교육부 “대학 간 공유·협력 막는 규제 과감히 개선”

##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AI 등 신기술 교육역량 공유 지원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공유·협력 정도 대학 평가 활용  
대학가, 기대감 속 평가연계 우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2개 이상의 대학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21개 신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등 대학 간 공유와 협력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등교육 현장 곳곳에 박혀 있는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 간 공유와 협력 정도를 대학평가 지표로 활용키로 하면서 대학가에서는 “규제 완화 후 시행 여부를 결국 대학 평가로 연계한 점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9일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발표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물인터넷(Io

T) 등 신기술분야 교육에서 대학 간 공유와 공동 운영이 시작된다. 신기술분야 교육역량을 보유한 대학들이 자신의 역량을 공유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모듈화된 수준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교지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설립 시 충족돼야 하는 ‘4대 요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해의 대학과의 ‘공유’의 길도 대폭 열린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석사과정 및 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 온라인 학·석사 학위과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이 원격수업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강의 개설 학점·이수 가능 학점 상한 규정을 올해 하반기 폐지하면서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과거에는 일반 오프라인 대학에서 학점 20%까지만 온라인 수업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이 제한을 풀었다.

고등교육 현장 곳곳에 박혀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대학의 공유와 협력은 대학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내년부터 교육과정이나 시설 등 대학 간 자원 공유 실적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 간 협업·공유를 촉진하는 진단모델도 내후년까지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성급히 도입된 대학 원격교육에서도 공유 체계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해 대학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강의 운영 교육과 우수사례 공유 자리도 마련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체 대학의 99.4%가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강의 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된

다. 평가는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해 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전국 10개 권역별로 거점대학을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공용 LMS 및 원격강의 장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대학 간 실험실습 및 취·창업지원 공간 공유 등 온-오프라인 협업도 교육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학 간 원격수업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올해 하반기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가는 그간 교육 혁신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는 기대감 속에서 우려도 내비쳤다. 교육부가 규제를 완화해 대학 간 공유를 독려하면서도 결국 이를 대학 평가와 연계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한 대학 기획처장은 “교육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대학 교육과 운영에서도 공유경제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라면서도 “국내외 타 대학과 협업은 각 대학 인프라나 실정에 따라 부질 수 있는데, 대학 간 공유와 협력 정도를 대학평가 지표로 활용할 경우 대학에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송실대

### 학종대비 워크북 제작

송실대입학사정센터가 지난 7일 수시모집 전형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를 돕고자 제작한 워크북(사진)을 대입을 앞둔 전문 인문계 고등학교에 5부씩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송실되는 최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워크북을 제작했다.

워크북은 학생들이 직접 기록하고 점검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자기소개서 작성은 10단계로 나눠 항목별로 작성해볼 수 있다. 면접 준비 과정은 7단계로 나눠 스스로 점수를 주고 부족한 답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현진 기자

## 단국대

### 온라인 입시 설명회 개최

단국대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라이브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단국대는 오는 12일 13시부터 단국대 공식 유튜브 채널 ‘똑단발’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이야기’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단국대는 죽전캠퍼스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학부모의 안전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단국대는 이날 아주대·송실대 입학처 담당자도 초대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폭넓은 입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산업부-서울대, 디지털통상 아카데미 과정 개설

## 세계 경제 디지털 전환 대비 대면·온라인 강의 병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협력해 ‘2020년 디지털통상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 통상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의 교역과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 비교역제이던 의료와 교육 등의 서비스가 원격 진료,



정대진 통상정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MBA 프로그램 등으로 국경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없던 클라우드, OTT, 데이터 등 새로운 서

비스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이번 과정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는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1월 산학연 및 통상 관련 공무원 등 디지털통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범과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보완하고 수강인원을 확대해 9월12일~11월7일까지 격주로 총 10회에 걸쳐 전문가 강의와 포럼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대면강의와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병행되고 대면강의의 경우 감

염병 예방을 위해 수강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는 등 철저한 방역 하에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를 다루는 전문 교육과정이 없어, 민간과 공공 부분이 체계적으로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과정을 개설했다”며 “앞으로 디지털 통상 교재 개발과 대학 내 디지털통상 교과과정 개설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

# 옥용식 교수,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발간 (고려대)

환경생태 세계 석학들 편집인 참여

고려대는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교수가 세계 최대 출판사인 영국 테일러앤프랜시스그룹(Taylor & Francis Group)과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도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도서는 옥용식 교수를 포함 환경생태 분야 세계 상위 1% 연구자인 뉴캐슬대 Nanthi Bolan 석좌교수(호주), 미국 캔자스주립대 M. B. Kirkham 석좌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편집인으로 참여했다.

해당 도서는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최신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 ▲미세플라스틱의



옥용식 고려대 교수(좌)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신간 커버 (우)

최신 분석법을 포함한 환경 중 분포 특성 ▲미세플라스틱의 생태독성 ▲국가별 주요 미세플라스틱 오염 사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포함한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등 최근 미세플라스틱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핵심 주제를 총 25개 챕터에 걸쳐 집필했다.

/이현진 기자

# 교육부, 아산·포항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아산전자기계고·포항해양과학고 마이스터고 선정 조건부 동의

충남 아산전자기계고와 경북 포항해양과학고가 각각 지능형공장과 지능형해양수산 분야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됐다.

교육부는 충남 아산전자기계고와 포항해양과학고를 마이스터고로 선정하는 데 조건부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학교는 오는 10월 30일까지 교육과정과 교원연수 등 교육부장관이 정한 동의 조건을 이행하면 마이스터고로 최종 확정, 2022학년도부터 지능형공장(아산전자기계고) 및 지능형 해양수산(포항해양과학고) 분야 마이스터



교육부 세종청사

고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마이스터고는 국가·지역전략산업분야의 핵심기술·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직업교육모델 학교다.

교육부는 이번 선정된 학교에 대해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에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개발·운영상담과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 15일 디지털 포럼 개최

자선활동 연구 단체인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K SOP)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뉴노멀 시대 필란트로피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백성기 포항공대 명예교수 ▲김철환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블록체인과 기부플랫폼)가 주제 강연을 펼친다. 고도원 필란트로피운동본부 본부장 등의 필란트로피운동본부 소개에 이어,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KSOP는 필란트로피 전문연구단체다. 이번 포럼은 비영리기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벤터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